주님의교회는

1988년 6월 26일 이재철 전도사와 48명의 교인들이
용산구 한남동 청년여성교육원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으며
1996년 3월 3일부터는 정신학원으로 장소를 옮겨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강당을 건축, 1998년 11월 1일 입당하여 정신학원에 기증하였으며
다목적교육관은 2013년 12월 27일 준공하여 정신학원에 기증하였습니다.

주님의교회 이름은

마태복음 16장 16 – 18절에 근거하여
교회의 주인이 '오직 주님' 이시라는 뜻에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교회는 현재

성경적 삶의 가치관의 토양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의 비전과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미션으로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요,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이라는 삶의 이야기에 사역의 초점을 맞춘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신앙의 주체' 가 되고 '유·유·청·청 리바이벌' 하는
다음세대를 꿈꾸는 교회로, 가정과 교회가 연계되어 세상을 향해
하나님나라를 구현해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공동체입니다.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

2019년 신년특별새벽기도회

2018년 무지개잔치

주님의교회 창립예배(1988.6.26) 이재철 전도사 기도

2018년 첫 아기 나들이

(창간호)

함·즐·함·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 교회

"기억하라, 주님의 교회"

(창 13:3)

발행일: 남녀선교회신교회 (본 신교지는 무료이다) 발행합니다) 1996년 6월

이 제 원 장로

함·즐·함·울

저는 정말 예수구가 계셨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말 수 없을 지경입니다.
어떻 넘어 진실하게서
고단함에 소리를 들어서 시작한 것은

이 제 원(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정말 예쁜한 사랑으로 주셔서 어찌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대하시는 이 선생님!
제목이 함께는 서로 같이 주는 소리에서 "함
께 함께하고 함께 울어주는" 정말 사랑의
말씀이 저의를 인정해 드리도록 하시.

"함·즐·함·울"창간호에 바라는 희은소망!

이 제 원 장로

하나님의 교회는 한 번 이상 이 사람이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여